

국어 영역

14. <학습 활동>을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시제 및 단어의 품사에 의해 결정된다.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하여 그 단어에 쓰인 어미가 [표]의 ㉠~㉣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자료]

㉠ 하늘에 <u>뜨</u> 태양	㉡ 우리가 즐겨 <u>부르</u> 던 노래
㉢ 늘 <u>푸르</u> 던 하늘	㉣ 운동장에 <u>남</u> 은 아이들
㉤ 내가 <u>읽</u> 는 소설	㉥ 이미 아이들로 가득 <u>찬</u> 교실
㉦ 달리기가 제일 <u>빠르</u> 는 친구	

[표] 관형사형 어미 체계

	동사	형용사
현재	-는	㉠
과거	㉡	㉣
	-던	
미래	-(으)㉢	-(으)㉣

- ① ㉠의 '뜨'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 ② ㉡의 '부르던'과 ㉢의 '푸르던'에 쓰인 어미 '-던'은 ㉣에 해당한다.
- ③ ㉣의 '남은'과 ㉤의 '찬'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 ④ ㉤의 '읽는'에 쓰인 어미 '-는'은 ㉡에 해당한다.
- ⑤ ㉦의 '빠른'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 보자.

먼저 단어의 의미에 따라 품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되는데,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를 기준으로 구분된 것이다.

동사는 '뛰다', '넘치다'와 같이 사물의 행동이나 작용(변함)이 의미상 내포되어 있는 품사이다. 예를 들어, '남다'나 '차다'는 각각 '나머지 부분이 어디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다', '어떤 것으로 가득하게 되다'와 같이, 사물의 작용 양상(~게 되다)을 의미하므로 동사이다.

한편 형용사는 '붉다', '맑다'와 같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가 의미상 내포되어 있는 품사이다. 예를 들어, '푸르다', '빠르다'는 각각 '밝고 선명하다', '속도가 있다'와 같이, 사물의 성질 또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형용사이다.

종합하면 **동사는 사물의 행동 또는 변화,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품사로 정리된다.

둘째로, 용언의 활용 양상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단어가 '-다' 이외의 다른 어미들이 붙어 현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 단어는 동사이며,

어미 '-다'와 '-(으)㉢'만이 붙어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면 그 단어는 형용사이다.

이것을 활용한 구분 방법 두 가지로

1. 현재시제 선어말 어미 '-는/-㉢-'을 붙여보는 것이 있고,
2. 현재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여보는 것이 있다.1)

'뜨다'라는 단어는 단어만 보서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할 수 없다. 동음이의어 중에 형용사로도 쓰이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 하늘에 뜨 태양의 '뜨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해(태양)가 뜨다'에서 쓰이는 '뜨다'를 가져와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자.

- <1> 긴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 해가 뜨다(뜨-+㉢-+다).
- <2> 새해 첫날의 해가 뜨는(뜨-+㉢-) 중이다.

<1>은 '뜨다'에 선어말어미 '-㉢-'이 붙어 해가 뜨는 현재 상황이 묘사되며, <2>는 '뜨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해가 뜨고 있는 현재 상황이 묘사된다.

동사는 '-다' 이외의 다른 어미들이 붙어 현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품사이다. 이때 **'뜨다'는 두 가지 구분 방법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을 만족시키므로 동사로 구분된다.**

이제 단어의 성질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자.

<p>① 의미로 구분해보기</p> <p>동사: 사물의 행동이나 작용(변화, ex. '~이 되다')</p> <p>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p> <p>② 용언의 활용 양상으로 구분해보기</p> <p>동사: '-다' 이외의 어미들이 붙어 현재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음</p> <p>형용사: '-다' 또는 '-(으)㉢'만 붙어 현재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음</p> <p>→ 단어에 '-는', '-는/-㉢-'을 붙여 본다.</p> <p>두 방법 중 하나라도 현재 의미의 구/문장이 만들어진다면 그 단어는 동사</p>

1) 물론 형용사는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가 붙지 못하고, 목적어나 의도를 의미하는 연결 어미가 붙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하지만 형용사 '건강하다'가 '울해도 건강해라.' 같이 특이하게 쓰이는 사례가 있고, '남다', '잘생기다' 같이 상태 지속성이 있는 동사는 '남으려', '잘생기려'와 같은 형태를 생각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를 온전하게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넣지 않았다.

- 위에 따라 ㉔~㉖에 쓰인 각 단어의 품사를 각각 구분하면,
 ㉔의 '뜨다'는 앞서 살펴봤듯이 동사이다.
 ㉕의 '부르다'는 사물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이므로 동사이다.
 ㉖의 '푸르다'는 사물의 성질을 묘사하는 단어이고, '푸르다' 또는 '푸르느'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므로 형용사이다.
 ㉗의 '남다'는 '어떤 장소에 그대로 있다'는 의미 때문에 형용사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남는 것'과 같이 '-느'이 붙어 현재 의미의 명사구가 만들어지므로 동사이다.
 ㉘의 '읽다'는 사물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이므로 동사이다.
 ㉙의 '차다'는 '가득하다' 등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형용사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눈물이 자꾸 차다.'와 같이 '-느'이 붙어 현재 의미의 문장이 만들어지므로 동사이다.
 ㉚의 '빠르다'는 사물의 성질을 묘사하는 단어이고, '빠르다' 또는 '빠르느'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므로 형용사이다.

[참고]
 현재 논란이 있어 출제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느/느'의 형태가 아닌 어미가 와서 현재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단어도 동사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못나다'는 '느/느'이 붙어 현재의 의미가 부여되지는 않지만, '-었(-았)'이 붙어 '너 참 못났다.'와 같이 주어 '너'의 현재 상태를 못나다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못나다는 동사이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형용사인데 형태론적 시각에서는 동사로 처리되는 특이한 경우이다.

한편, 동사와 형용사는 붙을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의 분포에 차이를 보인다. 시간 표현과 관련된 문법 요소 중, 관형사형 어미와 관련된 것들은 '-느', '-(으)느', '-던', '-(으)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는 동사 어간에는 '-느'이 쓰이며, 형용사의 어간에는 '-은'이 쓰인다.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동사 어간에는 '-(으)느' 또는 '-던'이 쓰이며, 형용사 어간에는 '-던'이 쓰인다. 그리고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는 동사 및 형용사 어간에는 모두 '-(으)르'이 쓰인다.

이상의 내용을 14번 문제의 표에 따라 ㉑, ㉒, ㉓을 채우면 다음과 같다.

	동사	형용사
현재	-느	㉑-(으)느
과거	㉒-(으)느	㉓-던
	-던	
미래	-(으)르	-(으)르

특기할 만한 점이려면 관형사형 어미 '-(으)느'이 동사에 활용되면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형용사에 활용되면 현재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품사에 따라 시간과 관련된 문법 요소가 서로 다르게 쓰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활용해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일부 형용사들의 품사를 판정할 수 있다. 관형절이 안긴문장을 예시로 만들어 **관형사형 어미 '-(으)느'이 붙었을 때 문장 표현이 자연스럽게 되는지 품사에 따라 확인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맞다'는 형용사인데 동사로 착각해 '결맞느'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3학년이 결맞느/결맞은 모습을 보여라.'라는 문장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지 살펴보자. '모습'을 수식하는 관형절을 분석하면 '모습이 3학년이 결맞다.(?)'라는 안긴문장이 도출된다. 만약 '결맞다'가 동사라면 '결맞느'와 '결맞은' 모두 쓸 수 있고, '결맞은'은 과거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로 쓰인다.

하지만 이때 '결맞은'을 쓰면 안긴문장이 '모습이 3학년이 결맞았다.'가 되어, 마치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안은문장과의 호응이 어색해진다. 3학년이 결맞지 않은 현재의 청자에게 3학년이 결맞은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지, 과거의 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맞은'의 '-은'은 과거 시제로는 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맞다'는 동사가 아니고 '-(으)느'을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 형용사이다. 그러므로 '결맞다'에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를 쓴 '결맞은'을 골라야 한다.

위의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의미로 구분해보기
 동사: 사물의 행동이나 작용(변화, ex. '~이 되다')
 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② 용언의 활용 양상으로 구분해보기
 → 단어에 '-느', '-느-/느'을 붙여 본다.
 두 방법 중 하나라도 현재 의미의 구문장이 만들어진다면 그 단어는 동사
③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에 따라 구분해보기
 동사 어간에 '-(으)느'은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형용사 어간에 '-(으)느'은 현재 의미의 의미를 부여함. → 이를 활용해 관형사형 어미 '-(으)느'이 붙었을 때 문장 표현이 자연스럽게 되는지 확인해보기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14번 문제를 풀어보자.

- ① ㉔의 '뜨는'은 동사이고,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느'이 붙었으므로 ㉑의 사례가 아닌 ㉒의 사례이다.
 ② ㉕의 '부르던'은 동사이고, ㉖의 '푸르던'은 형용사이다. 각각 ㉒의 사례, ㉓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㉗의 '남은'과 ㉘의 '읽는'은 모두 동사이고,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느'이 붙었으므로 모두 ㉒의 사례이다. (정답)
 ④ ㉙의 '읽는'은 동사이고,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느'이 붙었으므로 ㉒의 사례가 아니다.
 ⑤ ㉚의 '빠르느'은 형용사이고,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으)느'이 붙었으므로 ㉒의 사례가 아닌 ㉓의 사례이다.